

“수고했다. 내 딸”



2015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일인 13일 광주 제37시험장인 광주여고 입구에서 한 어머니가 수험생인 딸의 불을 감싸며 격려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영어 쉬웠다... “100점 맞아야 1등급”

수학도 비교적 쉽게 출제... 변별력은 국어·탐구영역
가채점 토대로 수시 면접 응시 여부·정시 전략 짜야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에서 통합형으로 치러진 영어 영역이 수능 사상 가장 쉽게 출제되면서 만점자가 4%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점자 4%대는 전체 45문항 중 1문항이라도 실수했다면 2등급으로 내려앉게 돼 최저학력기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학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운 수준이었지만 3문항에서 변별력을 갖췄고, 국어 B형과 과학탐구 영역은 작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돼 상위권 수험생들의 대학 합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7면>

광주지역 교사와 수험생들은 국어 B형과 과학탐구는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고, 수학과 영어는 대체로 쉬웠다고 평가했다. 올해 다시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는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맞춰 EBS와 연계 수준이 75.6%까지 높아졌다. 만점자 비율이 '물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 9월 모의평가(3.71%)보다 더 높은 4%대가 될 전망이다. 1등급 기준 점수는 97~98점으로 예상돼 45문항 중 1문항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어는 문과 수험생이 주로 보는 B형이 작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돼 대입 합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어 A형의 1

수능 이후 남은 대입 일정



등급은 94~95점 정도이며, B형은 93~94점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학은 A/B형 모두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는 평가다. 1등급 기준점수도 작년보다 1~2점 상승한 93~94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과 수험생은 국어와 탐구영역이, 이과 수험생은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정시 합격의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BS교재와 수능 문제의 연계율은 문과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됐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국어 A/B형 71.1%, 수학 A/B형 70.0%, 영어 75.6%, 사회탐구 71.0%, 과학탐구 70.0%다.

장광재 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승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영어는 너무 쉬웠고, 국어와 탐구영역은 어려워져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를 주시해야 한다”면서 “가채점을 토대로 수시 면접 응시 여부와 정시 전략 등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2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다음달 19~24일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코앞’ 진입로 개설은 ‘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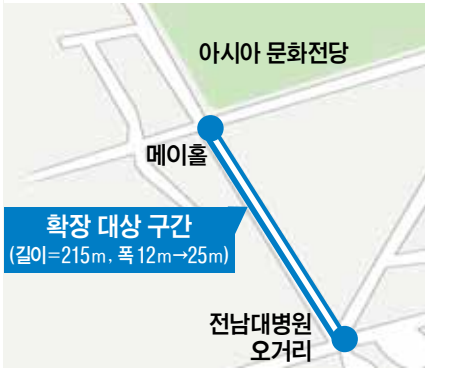
사업비 193억 확보 못해 9년 허송... 전일빌딩 활용 방안도 표류

개관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진입로 개설이 9년째 원점을 맴돌고 있어 개관 이후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활용하기 위해 광주시가 매입한 전일빌딩 활용방안 마련도 3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광주시가 임택(새정치·동구 1)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메이홀~전대병원 오거리) 개설은 지난 2005년 광주시의 문화전당 건축협약 당시 교통영향평가 수용 조건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다.

시는 기존의 폭 12m, 길이 215m의 광산길을 폭 25m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비 193억원 중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전당 부지의 기반공사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9년째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진입로 문제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

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또한 지난 2011년 7월 광주도 공사를 통해 138억원에 매입한 전일빌딩의 활용방안도 3년째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일빌딩 내 외환은행 지분(60억원) 매입 문제와 철거후 신축시 소요되는 비용(266억원)보다 더 많은 리모델링 비용(378억원),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충돌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라는 개임 의원의 지적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남해 잇는 ‘동서해저터널’ 탄력

한려대교 대신 추진...타당성 검토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추진

여수 낙도와 경남 남해 서면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과 여상규 의원(경남 하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관련 세미나를 열어 타당성을 논의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영호남 화합을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사업비 1조6000억원) 건설사업이 추진됐으나 비용편익분석이 0.14에 불과해 사업비가 덜 드는 해저터널(5040억원)이 대안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이 1미만인 0.4에 그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 등이 나서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 지역관광 및 산업 증진을 위해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부는 2016년 국도 계획 포함 여부 검토, 기재부는 2015년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검토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6년에는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갖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해저터널의 연장은 4km 전후로, 왕복 2차로로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로봇 로제타호 혜성에 올라타다 ▶ 2면
외국계 저가항공 서비스도 '자카' ▶ 15면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매리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배출량: A200CDI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A200CDI Style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A200CDI Night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A200CDI 1,796cc, 1,479kg, 7단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18km/l (도시연비: 16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